

그리스도인과 여가

전 국 재 / 소장 · 청소년과 놀이문화 연구소



상을 살다보면 억지로 못하고 안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웃음이 있다. 안되는 애기지만 때려서라도 남을 억지로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과연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웃길 수가 있는 것일까? 전해오는 속담에 “배부른 망아지는 시냇가에 끌어올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라.

‘게오르규’의 소설을 영화화한 <25시>에서 잊혀지지 않는 마지막 장면이 있다. 게르만민족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주장하는 나찌독일의 선전 노리개가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주인공이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서방 기자들이 사진기를 들이대고 그에게 웃기를 강요하자 억지 웃음에 덧입혀진 일그러진 웃음이 바로 그 장면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웃지 않는 한 억지로 웃을 수도 웃길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이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유독 인간에게만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안면근육이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 이로 보건대 웃음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확실한 잣대가 될 수 있으며, 웃음의 특권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심히 좋아하셨으며(창 1:31),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이들이 인생을 즐기도록 한 데에 있었다. 인간이 참된

**해맑은 웃음, 잔잔한 웃음,
 기쁨을 안겨주는 웃음, 훈훈한 웃음,
 새록새록 생각나는 웃음… 이런 분위기가 그림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연과 벗하여
 유유자적하며 인생을 즐기던 선조들의 지혜와 여유가 이롭다.
 참된 웃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웃음과 안식을 잃어버린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임도 성경이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어쨌든 인간은 웃음을 찾고 웃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깨끗한 웃음과 참된 웃음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TV드라마나 코메디를 보고 있자면 악쓰고, 헐뜯고, 비아냥대고, 비웃고, 때리고, 남의 실수를 웃음거리로 삼는 것에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신문을 보더라도 대부분 어두운 기사 투성이고 대부분의 연재만화들도 음담패설이 웃음거리로 제공되고 있음을 본다. 이것들이야말로 비(非) 웃음, 곧 거짓웃음인데 진솔한 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거짓웃음, 억지웃음, 쓴웃음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해맑은 웃음, 잔잔한 웃음, 기쁨을 안겨주는 웃음, 훈훈한 웃음, 새록새록 생각나는 웃음… 이런 분위기가 그림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연과 벗하여 유유자적하며 인생을 즐기던 선조들의 지혜와 여유가 이롭다. 참된 웃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웃음을 소유한 사람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요, 소망이기도 하다.

그러면 레저와 레크리에이션의 의미에 관해 잠시 정리해 보자. 여가 또는 여가생활로 이해되는 레저(LEISURE)는 그 어원이 회랍어 '스콜레'(SCOLE)와 라틴어 '스콜라'(SCOLA)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단어들은 학습을 의미하는 SCHOOL의 어원이기도 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레저는 자유롭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크리에이션을 오락행위나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극히 편협하고 왜곡된 것이라 하겠다. 오락이나 게임은 레크리에이션의 극히 작은 분야일 뿐 그것이 레크리에이션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미의 라틴어 LICERE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므로 여가는 원래적인 의미로 볼 때 자유와 학습, 이 두 가지 개념들이 불가분의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레크리에이션은 레저에 담는 내용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즉 생업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에 자발적으로 즐기는 창조적인 행위인 것이다.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개념을 몇가지로 설명해 보자. 첫째, 레크리에이션은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해방된 자유시간에 가지는 자발적인 활동이며, 둘째, 레크리에이션은 그 자체가 동기가 되어 이루어지는 즐거운(Fun) 활동이며, 셋째, 레크리에이션은 자기 발견과 건전한 공동체형성을 위한 가치창조적 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크리에이션을 오락행위나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극히 편협하고 왜곡된 것이라 하겠다. 오락이나 게임은 레크리에이션의 극히 작은 분야일 뿐 그것이 레크리에이션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수많은 위대한 예술가, 철학자, 종교인, 그리고 장인들의 삶의 모습은 생계를 위한 노동인으로서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였던 자유인들이 었다는 점에서 위대한 여가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레크리에이션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가? 레크리에이션의 중심적 의미와 가치는 성서가 증언하고 있다. 즉 여가의 조건이 자유와 학습(진리 추구를 위한)이라면 자유를 주는 진리는 성서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가생활에 대해 성경이 증언하는 몇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첫째날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4)고 하신 사실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후 바다, 하늘, 땅과 각종 식물들, 곤충,

날짐승과 동물, 물고기, 해와 달을 만들어 내실 때마다 기뻐하셨다(창 1 : 10, 12, 21, 22, 31).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모습(창 2 : 7-8)을 보면 진흙으로 요모양 조모양 만들어 재미있게 놀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하나님께서 은 세상천지를 만드시고 인간까지 창조하신 후 일곱째날 친히 쉬셨다(창 2 : 3).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갖 만물들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 1 : 2)고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온갖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에서 노동(Labor)하는 분의 모습이 아니라 흡사 즐겁게 놀이(play)하는 분의 모습을 본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이들이 당신께서 만드신 온갖 만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만드시나 주목하여 보신 모습은 재미있기까지 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마냥 자유롭게 즐기며 노닐며 이를 지켜보며 함께 즐기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반역한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도 참된 진리를 통하여 박탈당한 자유와 즐거움을 되찾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 죄의 울무를 벗겨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 : 20)

J. K. Galbraith는 그의 저서 “풍요로운 사회”에서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변화하는 세가지 노동현상을 노동 시간의 단축, 노동 시간에 주어지는 노동량의 약화, 그리고 노농 인구의 축소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되어질 것이며 결국 일 중심의 사회에서 여가 중심의 사회로 변모할 것을 갈파하였다.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기계화, 이를 통한 경제적 풍요는 결국 인간들에게 더 많은 여가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가 중심의 사회를 맞이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를 창조적이고 가치있게 대처할 노우하우를 축적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러한 위기를 맞고 있다. 얼마 전 ‘뉴스 위크’지는 과소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을 졸부의 나라로 소개하여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람들은 힘든 일을 기피하고 있다. 한탕주의가 팽배하고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소위 3D현상에 경제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요즘 경제계에서는 5대 더하기 운동이라 하여 ‘일, 저축, 절약, 생산성 향상, 수출’을 더하자는 반성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불행한 현상은 노동의 숭고함과 여가생활의 의미와 그 상관관계를 몰이해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속된 말로 “개 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쓴다”는 말이 미덕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관심하게 살아왔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만큼 이룬 배경에는 이 덕을 보았는지는 몰라도, 그 결과 우리는 온갖 퇴폐, 향락, 황금만능주의, 사회윤리의 붕괴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폐해의 댓가 또한 이미 툭툭히 치루고 있는 셈이다.

땀 흘린 노동의 보람 없이는 참된 여가가 존재할 수 없다. 손가락 하나 까딱 거리지 않고 땅 투기나 증권 투자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으로 흥청망청 놀고 먹으며 살아가는 졸부들은 여가의 참 기쁨과 의미를 결코 영유할 수 없는 것이다.

필자는 여가 중심의 사회로 급격히 변모하는 현실을 대처하는 새로운 지혜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문제는 지금까지 일 중심의 사회에서 가졌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노동시간이 줄고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여가선용에 대한 지혜와 적절한 대책이 없는 한 결코 축복일 수 없으며 오히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재난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가 중심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개인과 사회를 보는

시각이 마땅히 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여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여가의 시각에서 오늘의 변모하는 사회현상과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놀이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체육학, 교육학 그리고 신학계의 선지자적인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면상 몇몇 대표적인 학자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놀이 연구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네델란드의 사회학자이며 인류학자인 Huizinga는 놀이 연구의 바이블라고 불리우는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Homo Ludens)를 내놓았다. 놀이의 인간이란 뜻의 '호모 루덴스'에서 그는 "놀이는 문화를 낳고 문화를 지탱한다"고 하였으며 인류의 모든 문화는 놀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놀이 자체라고 주장하였으며 놀이를 상실한 문화는 붕괴한다고 하였다. 그는 근래에 와서 놀이정신(play spirit)이 실용주의나 일 중심사상에 의해 위협을 받아 왔으며 그 결과 인간의 문화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놀이를 인류학적 분석을 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Norbeck와, Malinowski가 있으며, 심리학자들로서는 Piaget, Bruner, 그리고 Ellis 등이 있다. 발달 심리학자 Piaget는 인지발달이 여러 단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놀이도 발달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이밖에 체육학자인 Mitchell, Mason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놀이를 연구한 대표적인 신학자는 '바보들의 축제'의 Harvey Cox, '놀이의 신학'을 저술한 Moltmann, Robert Lee 등이 있다. Lee교수는 여가의 목적은 인간의 전인격적인 성장과 완성에 있다고 보았으며 여가의 개념을 언어학적 어원에서 찾기 보다는 '안식일'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Moltmann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이 놀이하며 찬양하는 인간을 구원받는 자이며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이 얻어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편협한 사고와 편견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오락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소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가는 텅 빈 공간과 같은 것이어서 밝은 빛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둠이 지배하고 부패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에,
밝은 빛으로 채워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에 대한 언급으로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편협한 사고와 편견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오락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소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가는 텅 빈 공간과 같은 것이어서 밝은 빛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둠이 지배하고 부패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에, 밝은 빛으로 채워야만 한다.

여가는 노동을 한 후에 남는 자투리 시간도 아니다. 여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인생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자유와 기쁨 속에서 진리탐구의 구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구속과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여 순례의 길을 가는 진정한 순례자의 여정에서 우리는 고된 노동과 고행의 험난한 길만이 아니요, 즐거움과 구도의 감격스러운 여행인의 모습도 아울러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가와 노동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자유와 가치 추구의 자세로 임하는 성숙한 여가일때 비로소 부담과 의무감에서 임하던 노동에서 벗어나 여가인의 정신으로 노동의 참된 기쁨과 웃음을 아울러 누리는 성숙한 새사람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이를 거룩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0 : 28)